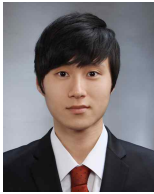


수석합격기
[제54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탄탄한 기본기가 가져다 준 합격의 영광



이 호 영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2학년 재학 중
- 2012년(제54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발표날까지 혹여 형사소송법 과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수석 합격수기를 쓰고 있으려니 꿈만 같습니다. 제 공부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혹여나 참고가 될까하여 씁습니다.

I. 시기별 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2009년 7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학교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했습니다. 선배의 말을 들어 형법요론을 교재로 신호진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3~4강 정도의 강의를 들었으나 열의가 부족했던 터라 복습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2010년 2월의 시험은 응시할 수 없었으므로 내년에 다시 제대로 공부할 생각으로 당시에는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만 각론 부분은 판례 위주의 암기가 가능하므로 뒤로 미루는 것이 마음이 편했지만 총론은 복잡한 이론이 많아서 중요부분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10월 경에 형법이 끝나고 정회철 저 기본강의 헌법을 교재로 김현선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헌법은 난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헌법총론이나 기본권 총론 부분에서는 내용의 추상성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고 부속법령이나 헌정사 부분에서는 많은 양에 압도됐습니다. 그 결과 강의는 모두 수강했지만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1월 경부터는 권순한 저 민법요해를 교재로 권순한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010년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

로 2011년의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때부터는 열의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강의 4~5개를 듣고 해당 부분을 한번 읽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조금은 나태한 생각에 저녁을 먹고서는 귀가하곤 했습니다. 3월에는 학기가 시작했고 수업과 병행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양이 많은 민법 강의를 5월이 돼야 완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해서 공부한 결과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갖출 수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부터는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2년 재시를 치를 때까지 총 4학기를 휴학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나서는 가장 취약했던 헌법을 다시 듣자 했고 마침 7월에 개강하는 금동흠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선배의 추천의 말도 있었고 또 교재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질문을 친절하게 답변해주셨고 매주 토요일마다 보는 복습시험은 공부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8월 중순에 완강했는데 이때는 헌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것 같았습니다. 8월의 남은 기간동안에는 권순환 강사의 친족상속법 강의와 이종훈 강사의 국제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9월부터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시작했습니다. 민법은 권순환 강사, 형법은 신호진 강사, 헌법은 금동흠 강사의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효용에 대해서는 수험생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저는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록 매일 진도

를 밀리지 않고 예습하여 시험을 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이 4개월의 기간을 이를 악물고 버틴다면 과정의 끝에서는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저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를 사들고 먹으면서 공부했던 적이 많습니다. 집중반과 해설강의 중 집중강의만을 수강했는데 사실 다음날 진도를 예습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강의는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나고 마지막 기간에는 기본서를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요약서나 객관식 문제로만 마무리를 하기에는 빠진 내용이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서를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줄여야 했는데, 형광펜으로 모르는 부분을 덧칠해가며 그 부분만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덧칠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험 마지막까지 빠르게 기본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둔 마지막 1주일에는 지난 6여년간의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을 치르듯이 시간을 재서 풀어봤습니다. 물론 공부과정에서 이미 접했던 문제가 다수였으나 그래도 시간 안배나 자신감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2. 제2차 시험

보통 초시 기간에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으나 저는 초시에도 진지하게 임해보고자 예비순환이 아닌 지난해 1순환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했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기본3법은 수강하지 못했고 후4법만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창한 강사, 상법은 김혁봉 강사, 형사소

송법은 신이철 강사, 행정법은 류준세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4강의 정도를 듣고 복습을 했으며 초시에 들어가기 전까지 2회독 정도를 했습니다.

비록 초시에는 낙방했지만 그 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과목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순환 동안에는 같은 강사들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정주형 강사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신이철 강사의 강의도 좋았고 실제로 초시점수도 7법 중 형사소송법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사례단문집의 글씨가 조금 작아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행정법의 경우 초시 때는 박균성 저 기본서로 공부를 했지만 1순환부터는 바로 워크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불교재를 1순환부터 정리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순환 기간에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응시하지 않았고 내용의 이해 및 기본적인 사항의 암기에 치중했습니다. 기본3법의 경우 민법은 민법의 맥을 교재로 윤동환 강사, 형법은 더형법을 교재로 이재상 강사, 헌법은 정회철 저를 교재로 김유향 강사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후4법과 공부방법은 같았으나 헌법의 경우에는 1순환부터 핵심정리 헌법의 내용을 조금씩 암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2순환부터는 학원을 다니며 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7과목 모두 강평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진도에 밀려서 시험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모르

는 부분이 있을 때에 수업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매일매일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를 빠진다고 하면 그날 분의 진도는 3순환이 되어서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마음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2순환부터는 매일 민법도 공부했는데, 민법의 맥에 들어있는 백여개가 넘는 사례를 하루에 2개 정도 매일 풀었습니다. 민법의 경우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감각을 항상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례 푸는 방법은 세부적인 목차를 잡고 관례의 경우에만 원문을 적시하는 연습을 한 다음 답을 보는 식이었습니다. 틀린 경우에는 논리의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무슨 내용을 몰랐던 것인지 체크하여 교재에 반드시 써놓거나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두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순환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도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눈으로 읽은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읊조릴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2순환 때에는 암기가 많이 부족했지만 3순환과 그 이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3순환 때에도 2순환과 동일하게 공부했습니다. 2순환과 달라진 것은 3순환의 경우 매일매일의 진도가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3순환에서는 암기를 중심으로 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는 이제 눈을 감고 다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았습니 다. 판례의 경우 특히 원문 암기에 신경을 썼는데, 필요하면 두문자를 따서 암기했습니다.

3순환도 끝나고 마지막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혼자 교재를 읽었습니다. 4-2-1을 목표로 세우고 했는데 다만 7법을 모두 하기에는 날짜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법의 경우 달리 배정을 하지 않고 매일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씩 기본서를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돌아해보니 그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학원에서 4순환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상법을 제외한 6법의 경우 아침에 잠깐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루할 수 있는 공부기간에 그나마 변화를 주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2차 시험 도중에는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했습니다. 체질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집중을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II. 과목별 공부방법

후4법과 헌법의 경우 유사하게 공부했습니다. 민법과 형법은 매번 해당부분이 교재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교재 앞뒤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후4법과 헌법의 경우 해당 쟁점에 대한 완전한 암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7법을 통틀어서 학설과 검토보다는

문제의 소재와 사안의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푸는’ 부분은 사안의 해결이고 답안지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는 부분은 문제의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의 비중을 40%정도의 분량에 맞춰 서술했습니다. 문제의 소재에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최대한 적시해서 왜 이 쟁점이 문제가 되고 여기서 소개돼야 하는지, 등장인물들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썼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이라는 핵심요소가 사안의 해결에 들어가야 하므로 더욱 신경썼습니다. 학설은 핵심적인 학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내용을 쓰고 부수적인 학설은 제목만 적시하는 정도로 서술했습니다. 대신 판례는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암기해서 적시했습니다. 검토는 독창적인 검토보다는 교재에 있는 무난한 검토 위주로 갔습니다. 대신 사안의 해결에서 검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점수를 따려고 했습니다.

III. 수험생활 관련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는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만나질 정도 주로 토요일 오후 정도만을 쉬고 6일 반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부족에 항상 시달릴 정도로 공부량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럴 때에는 다른 시험 수험생인 친구와 고기를 먹는 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별도로 체력관리는 하지 않았고 그 대신 공부 외의 것에 체력을 빼기지 않도록 행동을 최소화했습니다.

IV. 감사의 말씀

수석이라는 영광은 결코 제 홀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물심양면으로 항상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님

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석은커녕 합격도 요원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곁에서 응원해주고 즐거움을 주던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포함합니다.